

덩크슛! 한번 해봤으면...

권태형 월간 캐드캠 기자 / webmaster@cadzone.co.kr

무엇인가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해외도 좋고, 국내도 좋고 한달 정도 두발로 걸어다니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

172cm의 나는 아무리 멀리 뛰기틀 해도 프리드로우 라인에서 절반 밖에 뛰지를 못한다. 마이클 조던 처럼 그런 멋진 덩크슛을 한번 해보고 싶다.

최근 몇 십억 원짜리 복권이 나와 가슴이 뛰었지만, 결국 나는 한 장도 사지 않았다. 복권=도박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도박을 해서 돈을 따본 기억을 뒤져보아도 없고, 잃어버린 추억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돈 많은 백수로 변신될까봐 두려움도 있었다(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 데).

내가 하고 싶은 3가지 소원이라는 생각은 어린 시절에는 많이 해보았지만 최근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현실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추측된다. 몇일 전 이사준비 중 물건을 정리하면서 예전 군대에서 썼던 펜팔(연애편지?) 중 일부를 보게 되었다. 그 험란한 문체를 보면서 대단히 감탄했다.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문장이...”

그 화려한 문장과 현재의 문장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잘 써진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3가지 중 모두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과 관련 있을 것 같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무엇인가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길다고 생각하면 기나긴 인생이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인가 취미활동을 가지고 있어야하지 않나 싶다. “음주가무”를 제외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현재까지 나의 취미는 “농구”와 “음악”이다.

농구는 대학시절부터 현재까지 체력을 위해 하고 있고, 음악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 열심히 CD를 모으고 있다. 대학시절에 LP판을 모으기 위해 식사도 거르고, 걸어다녔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용돈을 적게 쓰더라도 CD를 사서 음악을 듣는 즐거움은 여전하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앞으로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다티”라는 영화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쑥스럽다. 유선방송에서 재방송으로 딱 한번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잔잔한 내용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이다. 이 영화가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었던 것은 부정적인 시각의 사람이 긍정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비디오를...).

긍정적으로 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한다.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상병이 되어서 야 나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군입대 후 새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세상을 너무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단지 새소리 하나가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바뀌었다. 앞으로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다.

“배낭여행”을 해보고 싶다

배낭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꾸준히 가져왔지만,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나 보다. 물론 자금 동원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생활 동안 술을 조금만 덜 먹었더라도 다른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을 것을.

해외도 좋고, 국내도 좋고 한달 정도 두발로 걸어다니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 힘들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짬은 가보고 싶다.

“덩크슛”을 하고 싶다

예전에 이승환의 노래 중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내 평생 단 한번만이라도..”라는 간절한 가사를 붙였지만, 결론은 덩크슛 한번이다.

이제는 은퇴를 하였지만, 마이클 조던의 순간 정지 능력이 대단하다. 1.7초라는 시간 동안 공중체공을 할 수 있다고 소문나 있다. 그런 그의 덩크슛은 얼마나 통쾌한지.. 그가 보여준 덩크슛 중 가장 멋있던 것은 1988년도에 그의 홈 그리라운드에서 이뤄졌다. 그는 프리드로우 라인에서 점프를 해서 덩크슛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때 얻은 별명이 “에어 조던”이다.

172cm의 나는 아무리 멀리 뛰기틀 해도 프리드로우 라인에서 절반 밖에 뛰지를 못한다. 마이클 조던 처럼 그런 멋진 덩크슛을 한번 해보고 싶다. **KCRC**